

■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날선 질문공세에 다양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축소해 親李계 환심 사려하나”

예스 24 고문 국가공무원법 위반·소득세 탈루 추궁 수입보다 지출 많은데도 금융자산 3억 증가 이유는

국회가 21일 실시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입장 변경에 대해 과상 공세를 퍼부었다.

야당의원들은 또 기존에 제기된 세 금탈루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예스24' 고문 활동의 부적절성과 가계 수입 구조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턱없이 많은 점 등을 추가 제기했다.

◇세종시 논란=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에 대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충청 출신 총리를 내세워 충청권의 최대 현안이자 이명박 정권의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를 입맛에 맞게 축소, 변질시키겠다는 ‘이충제충’(以忠制忠)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 후보자가 뒤늦게 효율성을 운운하는 것은 총리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정 후보자가 세종시 문제를 갖고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며 “세종시에 반대하는 수도권 친이(친이명박) 직계의 환심을 사 당내 정책 기반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앞으로 약

20년간 22조5천억원, 혹은 그 이상 돈을 써서 세종시가 ‘자족적 도시’가 못 되면 그 돈을 쓴 것에 대한 결과와 바 판하지 않게 나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예스24’ 고문 관련=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 후보자의 교수 시절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고문 겸직 부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 후보자는 “고문은 총장의 결재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나아가 김종률 의원은 “정 후보자는 ‘예스24’로부터 자문료 9천500만 원을 원천징수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779만 여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며 “정 후보자는 자문료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아 1천996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위법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천만원 운동과 지출 초과=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이날 “세계 최대 모자회사인 Y회사 회장이 정 후보자에게 용돈을 줬다고 하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정 후보자는 “해외에 나갈 때 (Y회사 회장

으로부터) 간혹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며 소액을 받은 적이 있다. 두 번에 걸쳐 1천만원 정도 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해까지 3년간 정 후보자의 가계 수입보다 지출이 4천200만원이나 많은데 비해 금융자산은 3억2천만원이나 증가했다”며 “노출되지 않은 수입이 3억6천2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지출총액 등 필요경비로 계산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중복계산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병역 기피 의혹=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지난 1977년 고령(31세)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은 데 대해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대학 1학년이던 지난 66년 보충역 관정을 받았으나 68년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라는 이유로 한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70년 재검을 받아 이듬해 재차 보충역으로 관정받았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1967년 보충역으로 배정된 뒤 1968년에 징집명

장을 받아 논산으로 갔는데 징집관이 서류를 보고 ‘올 필요 없는데 왜 왔나’고 했다”며 “부선망 독자 징집 혜택은 1967년 병역법이 개정돼 1968년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선 후 관계상)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귀남·백희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와 여야 간의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여성위도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여야 간의 견해차이로 아예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구원투수 어디 없나”

손학규 불출마·김근태 카드까지 흔들 결과따라 당 내부 역학구조도 변화 예상

손학규 전 대표의 수인 장안을 불출마 선언으로 10월 재보선을 둘러싼 민주당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손학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안산 상록 을의 김근태 전 의원 차출 카드까지 흔들리면서 재보선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손 전 대표의 불출마의 배경에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섞여 있다 는 점에서 10월 재보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조기 전당대회 주장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부 역학구조도 상당한 변화도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밤 손 전 대표 불출마 대책을 속의 한데 이어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10월 재보선 공천 문제를 논의하는

등 해법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손 전 대표의 결정을 존중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공천 문제를 조만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전 대표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만나 어떻게 승리로 이끌지 논의 할 것”이라며 “수원 뿐 아니라 다른 곳의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수원 장안의 경우 이찬열 현 지역위원장이 출마하고 손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이 위원장의 지명도가 낮은 점이 고민스런 대목이다.

이와 함께 손 전 대표의 불출마는 안산 상록 을의 김근태 전 의원의 차출 구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뜩이나 기존 지역후보들이 ‘낙하산 후보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손 전 대표의 불출마는 김근태 전 의원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임종민 전 의원이 진보정당 단일후보격으로 출마를 확정지은 상태라 사정이 더욱 복잡하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10월 재보선에서 ‘4대 0’ 전패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정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특히, 10월 재보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민주당 내부에 잠복해 있는 계파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주장 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김동철 “상습 하도급 위반업체 명단 공개”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21일 상습·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 명단을 공개, 하도급을 둘러싼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막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정 전 수석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정 후보자에 대한 평판 조회 결과 껍데기는 번지르르하나 속은 신통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정 후보자를 총리로 내정한 것은 ‘인사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광주시장 출마설에 대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인가 고민 중이다”며 “오는 28일 까지 광주 구석구석을 돌아본 뒤 추석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여성의원들 강진서 워크숍

○광주지역 전·현직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광주시 여성지방의원협의회(회장 이명자)와 광주여성회 운영위원장·사진)과 광주여성희망포럼 정치분과위원회는 21일과 22일 이틀동안 강진에서 ‘21세기 여성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박재호 호남대 교수가 ‘여성의원의 감성 리더십 개발 전략’, 정현애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여성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본인토의가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동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운찬, 참여정부선 예선 탈락”

○정창용(사진)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기용을 위해 알아봤으나 평판 조회 단계에서 탈락했다”며 총리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www.hanbitgosi.co.kr

2010년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망직 대폭 확대

소방직 전문학원

국채유일 시험장과 동별 소방채력특강기 도입

소방채력특강기 무료체험

가장양질의 수검료 + 교재 5원 무료

6개월 합격학원 90만원

이론강의 + 문제풀이 + 동영상 무료제공 + 채력특강

한빛소방직전문학원

광주 북구청앞 232-0232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행정직/ 세무직/ 검찰직/ 법원직/ 소방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기술직/ 경찰직

학원선수는 실적입니다.

2009년 국가직 388명 합격
2009년 서울직 209명 합격
2009년 전남직 99명 합격
2009년 광주직 119명 합격
2009년 경기직 127명 합격
2009년 합격자 한빛이 대다수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사설에서
당신은 수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강 10월 5일

종합/단과반 (호남유일 특수반 첫선도!)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

한빛고시학원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을야간반

= 호남유일 야간반 개설 =

첫개강 > 10월 5일

강의시간 19:00 ~ 22:50

기초부터 심화이론

체계적인 학습단계

합격 논스름강좌

7.9급 공무원 합격의 힘!

한빛고시학원